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3

2017년 8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교육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018년부터 중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갖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 꼽혔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내용의 하나로 포함된 것.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아직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 활동이나 계기교육 수준에 그치는 등 대부분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학교나 교사의 의지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수준은 천차만별인 상황.

이런 가운데 학교·학급·동아리 단위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키워가는 ‘유네스코학교’가 주목받는다. ‘유네스코학교’는 평화·자유·정의·인권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앞장서 실천하는 학교를 뜻하는 말. 전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 학교들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학교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60여개 초·중·고교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8월 기준)돼 있다.

유네스코학교가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일까?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송종진 유네스코학교 팀장을 만나 ‘유네스코학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묻고 들었다.



송 팀장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Open Union’” 이라면서 “2017년 유네스코학교 신규 가입은 2학기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시대의 필수 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정확한 정의는 ‘인류의 평화,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 기술(Skills)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다. 송 팀장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속한 학교를 넘어 지역, 국가, 세계로까지 관점을 확대해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그에 필요한 역량 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나’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

세계시민교육은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국제 분쟁과 갈등이 크게 늘면서 더욱 주목받는다.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와 분쟁에 책임을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 팀장은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갈 미래 사회 인재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열린 교육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서 전 세계 교육장관들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미래 교육 의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을 채택하기도 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유네스코학교의 활동은 그 자체로 세계시민교육과 맥이 닿아 있다. 유네스코학교들은 △평화와 인권 △국제사회 이슈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간 이해로 구성된 4가지 핵심 주제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해 이와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 팀장이 소개한 우수 활동 사례 가운데 경기 진건중은 4대 주제 활동과 연관해 학교 주변과 지역 하천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환경 보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보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학교축제에서 친환경 비누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 중인 아프리카 교육 지원 사업의 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송 팀장은 “멀게만 느껴졌던 환경,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들이 직접 기여하거나 노력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큰 자기효능감을 얻는다”면서 “평소 생각만 하거나 글로만 접했던 것들을 실제 활동으로 옮겨만 봐도 공동체 의식이 크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세계시민교육이 인권, 평화 등 묵직한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학습 내용까지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다. 송 팀장은 “최근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결합한 ‘글로컬(Glocal)’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변의 문제는 곧 글로벌 문제와도 연동된다”면서 “소소한 활동이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나의 변화가 내 학교와 지역 사회,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ODA 수혜국 ‘한국’, 이제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송 팀장은 특히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더 활발해지길 기대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지금의 지위에 이르기까지는 국제 사회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활약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

“흔히 한국을 두고 ‘ODA(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여국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시민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행동·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을 국제 사회에 돌려주는 나라가 되려면,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모든 문제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송 팀장)

유네스코학교를 통해 본 세계시민교육

출처: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asp.unesco.or.kr)

4대 학습 주제

1) 평화와 인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인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문제 △여성의 권리 △소수민족의 지위 △고용과 실업 △세계인권선언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탐구합니다.

2) UN 우선과제(국제사회 이슈)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과제를 선택하여 지역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분석합니다.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유네스코학교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찾아봅니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 갖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의미와 쟁점에 대해 이해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찾아보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모두 찾아보며 다양한 입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4) 문화 간 이해

역사, 지리, 사회,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살린 통합교과적 접근을 제공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 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 전통, 종교 등을 이해합니다.